

## 환관 이야기에 나타나는 젠더 이분법의 균열 양상과 그 의미

— 환관 · 환처 소재 야담을 중심으로\* —

조현우\*\*

<차 례>

1. 문제제기
2. 환관의 이중적 성격과 사대부들의 환관 비판
3. 야담에 나타난 환관과 환처의 형상
4. 환관의 젠더 체계 교란과 그 의미
5.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환관(宦官)과 환처(宦妻) 관련 서사 및 각종 문헌을 토대로 환관이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조선 시대의 젠더 이분법 체계에 균열을 야기하는 존재였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 시대의 환관이 가진 이중적 성격을 살폈다. 환관은 거세된 남성으로서 ‘非남성’으로 공인된 존재였지만, 동시에 정식 관리이자 혼인을 통해 양자를 들일 수 있는 가부장 ‘남성’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조선 시대 내내 사대부들의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 야담 중 환관과 환처가 등장하는 이야기에는 이와 같은 환관의 모순적 성격에 대한 사대부 남성들의 인식이 담겨 있다. <의환>에서 자신의 아내를 선비에게 주고 그를 과거 급제하도록 돕는 환관의 행위는 ‘의롭다’고 평가된다. 이는 사대부 남성들을 위한 ‘이로움’이 ‘의로움’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환처의 정욕과 관련된 이야기들 속에서 환관 아닌 남성들은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환처의 구원자로 그려진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환처는 다른 무엇보다 성관계를 갈망하는

\* 이 논문은 2018년 1월 27일에 열린 한국문학치료학회 제171회 학술대회에서 “환관 이야기로 읽는 성적 윤리와 감수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과도하게 성적인 존재로 형상화된다. <환처>에서 환관의 아내는 ‘가면을 쓴 남성’으로 묘사되고, 남성들은 그녀의 경험담을 안전한 웃음거리로 소비한다. 이와 같이 야담에서의 환관은 ‘결여’를 표상하면서 환관 아닌 남성들에게 자신의 성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였다. 환관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였지만, 동시에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남성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은 배제와 예외적 존재의 수용을 통해 이성애와 특정한 형태의 성관계만을 특권화하던 젠더 이분법에 일정한 균열을 야기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 내 존재이면서 그 체제에 끊임없이 균열을 야기했던 환관이야말로 조선 시대의 젠더 연구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환관, 환처, 젠더 이분법, 의환, 야담, 균열

## 1. 문제제기

이 글에서는 환관(宦官)과 환처(宦妻) 관련 서사 및 각종 문헌을 토대로 환관이 조선 시대 젠더 이분법 체계에 균열을 야기했던 문제적 존재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 시대 문헌과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환관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 사대부들이 환관의 혼인과 입양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환관의 존재, 그리고 가부장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가족 구성이 조선의 젠더 체계에 불러일으킨 파장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환관이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젠더 이분법 체계에 균열을 야기하는 존재였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환관은 거세된 남성으로 궁중에서 근무했던 관리를 지칭한다. 환관은 내시부(內侍府) 소속으로 종2품부터 종9품까지의 품계를 받았던 정식 관

리였다. 궁은 왕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남성의 거주가 금지된 장소였기에 환관이 반드시 필요했다. 환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환관의 정치 개입이 문제가 되었던 명나라 때에는 그 수가 10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조선 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서는 환관의 정원을 14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되었던 수는 그 이상이어서 많을 때 300명이 넘기도 했다. 환관은 궁중에서 왕명의 출납부터 음식, 주방, 차(茶), 약, 창고 관리, 열쇠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sup>1)</sup>

환관은 환자(宦者), 환시(宦寺), 환수(宦豎), 화자(火者), 혼관(閹官), 혼수(閹豎), 엄인(閹人), 엄시(閹寺), 엄수(閹豎), 중관(中官), 중환(中宦), 내환(內宦), 내시(內侍), 내관(內官) 등으로 불렸다. 그런데 이러한 명칭에서 환관이 가진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엄인, 엄수, 화자 등은 ‘거세’라는 신체적 특징에 주목한 명칭이다. 반면, 환관, 내시, 중관 등은 그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궁궐 ‘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가령 ‘환(宦)’은 궁궐[宮] 안에 사는 관리[臣]의 의미이고, ‘내시(內侍)’나 ‘내관(內官)’은 ‘안에서 모신다’ 혹은 그런 역할을 하는 관리라는 의미이다.

환관은 조선 시대 내내 존재했던 정식 관리로 금남(禁男)의 구역이었던 궁궐 내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한 조선 시대의 공식 기록에는 환관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그리고 많은 양의 기록이 남아 있다.<sup>2)</sup> 여기에 『성호사설』, 『오주연문장전산고』, 『연려실기술』

1) 환관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는 장희홍의 저서를 참고하였다. 장희홍, 『내시, 권력을 희롱하다』, 경인문화사, 2006, 12~57쪽.

2) 『조선왕조실록』에서 ‘환관(宦官)’, ‘엄수(閹豎)’ 등의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면, 대략 7,000건이 넘는 관련 기록이 나타난다. 물론 이 숫자에는 ‘환관 아무개가 어떤 일을 했다’는 단순한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고, 중복된 내용도 있다. 그렇다 해도 상당한 수의 기록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등의 각종 문헌과 개인 문집에 수록된 환관 관련 기록물까지 포함하면, 그 양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환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환관이 주로 연구된 것은 역사학 분야에서였다. 장희홍은 환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시부의 변천과 기능, 시대별 환관의 기능 등을 연구했다.<sup>3)</sup> 그 외에 환관의 족보인 『양세계보(養世系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관 가족의 구성과 기능을 검토한 연구가 있다.<sup>4)</sup> 또 중국과 조선의 지식인들이 환관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몇몇 사례를 통해 살핀 연구<sup>5)</sup>, 그리고 내시와 아전을 조선의 ‘보조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이들이 수행했던 역할을 종합적으로 살핀 연구도 있다.<sup>6)</sup> 이들의 연구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왕실 재정이나 궁중 음식 등 관련 제도와 기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환관이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외에 대중적 역사서에서 환관이 몇 차례 다루어지는 했지만, 주로 흥미로운 궁중 비사(秘史)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sup>7)</sup>

- 
- 3) 장희홍, 『조선 시대 정치권력과 환관』, 경인문화사, 2006; 『조선초기 환관제정비와 운영』, 『경주사학』 22, 경주사학회, 2003, 137~165쪽; 『연산군대의 환관정책과 내시부의 위상강화』, 『경주사학』 21, 경주사학회, 2002, 169~204쪽; 『조선전기 환관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4) 신명호, 『조선 시대 환관가족의 구성과 기능』, 『고문서연구』 26, 한국고문서학회, 2005, 123~142쪽.
  - 5) 김광일, 「환관과 지식인-眞德秀 『大學衍義』 「嚴內治」의 구조와 의미」, 『중어중문학』 60, 2015, 43~73쪽; 손민환, 「15세기 말 중국(明)을 견문한 조선 지식인의 환관 인식」, 『한국학연구』 2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307~331쪽.
  - 6) 박종성, 『아전과 내시-조선조 정치적 복종의 두 가지 형식』, 인간사랑, 2016.
  - 7) 1960년대에 처음으로 번역되었던 미타무라 다이스케의 저서는 중국의 환관 제도와 유명한 환관들에 대한 개관으로 참고할 만한 책이다. 이 책은 이후 한국에서 나온 저서들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의 환관 관련 저서들은 주로 궁중에서 있었던 환관과 궁녀 관련 비사를 소개하는 대중적 역사서이다. 본고에서 참고한 저서들은 다음과 같다. 박인수, 『환관』, 석필, 2003; 박상진, 『내시와 궁녀, 비밀

문학 분야에서는 『잡기고담(雜記古談)』에 실린 <환처(宦妻)>를 포함한 몇몇 야담들이 연구되었다. 그 중 <환처>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드러내는 정욕(情慾)이 갖는 의미가 주요한 관심사였다.<sup>8)</sup> 그러나 이 경우, ‘여성문학’의 관점에서 여성이 정욕을 긍정하고 그것을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표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연구는 환관의 ‘아내’에 집중했을 뿐, 그들이 ‘환관’의 아내였다는 사실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야담이 사대부들의 시선으로 기록된 사실적인 문학 장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야담에서 드러나는 환관과 환처의 형상화는 조선 시대의 젠더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환관이 조선 시대의 젠더 체계에 야기한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환관이 가진 이중적 성격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그들에 대해 사대부들이 끊임없이 비판과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본다. 그 후 몇 편의 야담을 ‘환관’이 등장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 환처의 이야기를 그들이 ‘환관’의 아내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분석하면서, 그 속에 나타나는 사대부 남성들의 자기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환관에 대한, 특히 그들의 혼인과 입양에 대한 사대부 남성들의 시각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통해 현재에도 유지되는 젠더 이분법의 특성, 그것이 야기하는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을 묻다』, 가람기획, 2007; 박영규, 『환관과 궁녀』, 웅진지식하우스, 2009; 미타무라 다이스케, 한중수 역, 『환관 이야기』, 아이필드, 2015.

8)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있다. 진재교, 『『잡기고담』 소재 <환처>의 서사와 여성상』, 『고소설연구』 13, 한국고소설학회, 2002, 225~267쪽; 이강옥, 『야담에 나타나는 여성 정욕의 실현과 서술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175~217쪽; 박무영·김성은, 『<환처(宦妻)> 다시 읽기-여성 담론을 읽는 한 방법적 시론』,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학회, 2010, 111~141쪽.

조선 시대 젠더 체계 연구에서 환관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시론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환관의 이중적 성격과 사대부들의 환관 비판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역대 왕조마다 환관이 존재했지만, 그 중에서 조선 시대의 환관에게는 다른 나라의 환관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다. 조선의 환관 역시 거세된 남성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환관과는 거세의 범위가 달랐다. 중국의 환관이 남성 생식기 전부를 제거했던 것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그 일부분만을 제거했다. 그런데 환관의 ‘거세’에는 실질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첫째, 환관은 거세를 통해 남성성을 실질적으로 잃게 된다. 이들은 가부장제의 정점에서 있는 군주의 생물학적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거세된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의 거세는 생물학적 남성성을 제거함으로써 자손 생산의 가능성을 없앤 것이다. 둘째, 환관의 거세는 단순히 생식기관의 제거만이 아니라 남성이 아니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은 남성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인 궁궐 ‘안’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결국 거세는 실질적인 동시에 상징적으로도 생물학적 남성을 ‘非남성’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환관은 합법적으로 ‘남성’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공식 관료제도 속에서 정식 품계를 부여받은 관리였다. 또한 이들은 합법적으로 혼인하였고 입양을 통하기는 했지만 자손을 둘 수도 있었다.<sup>9)</sup> 그 결과 적

9) 환관의 혼인과 입양 과정에 대한 기록은 드물다. 그 중 19세기 프랑스 외방선교회 소속 선교사였던 샤를 달레(Charles Dallet)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참고할 만하다. “이들 환관은 모두 결혼하였고 그들 중 대다수는 많은 계집을 가지고 있다. 이 계집들은 그들이 술책과 폭력으로 겁탈하거나 꽤 비싼 값으로 사들이는 가엾은 서민의

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와 아들로 이루어진 여타의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 환관은 가부장제 남성들의 생물학적이고 상징적인 계보인 족보를 갖고 있었다. 『양세계보』는 19세기에 편찬되었던 환관들의 족보인데, 이 책에는 이성(異姓)의 양자를 입양하는 과정을 통해 이어진 환관들의 가계가 잘 드러난다. 즉 환관은 조선 사회에서 ‘남성’에게만 허용된 관직에 진출한 공식 관료였고, 사적으로는 처자를 거느린 가부장이기도 했던 것이다.

‘환관(宦官)’이란 명칭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이중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 ‘환(宦)’이란 궁 안에 거주하기 위해 남성성을 제거했음을 의미한다. ‘관(官)’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만 허용되었던 관리를 지칭한다. 즉 ‘환관’에는 ‘非남성이자 남성’이라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성격이 담겨 있다. 환관의 이와 같은 이중적 성격은 사대부 남성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사대부들의 환관 비판은 대체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환관의 정치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생산력이 없는 환관에게 혼인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 세종조에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崔萬理)가 글을 올려 환관들이 연각(軟脚) 오사모(烏紗帽)를 쓰는 것은 옛 법제에 맞지 않으니, 중국의 예를 좇아 관(冠)을 쓰도록 할 것을 극력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에, “예로부터 역대 임금 중에 환관을 총애하고 신임하여 환관의 권세가 천하를 기울게 한 일이 심히 많았사옵습니다. 그러하온데도 능히 그 관을 바꾸지 못한 것은,

---

딸들이다. 그 여자들은 양반집 부인들보다 더 엄중히 간혀 있고 심한 질투심으로써 지켜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집은 같은 여성에게, 심지어는 여자 친척에게까지도 출입이 금지되는 수가 많다. 이들 환관은 아이가 없으므로, 전국에 밀사를 보내어 고자 어린이와 젊은이를 찾게 한다. 그들은 이들을 양자 들어 교육하고, 궁중 요직의 후보자로 내세운다.” 샤를 달레, 정기수 옮김, 『벽안에 비친 조선국의 모든 것 - 조선교회 사 서론』, 탐구당, 2015, 64~65쪽.

대개 환관의 무리들을 조관(朝官)과 혼동하여 사람의 이목(耳目)을 놀라게 할 수 없었던 때문입니다.” 하니 그 말이 매우 적절하였으나 모든 환관들이 흘려 보았으므로 그 논의가 드디어 정지되었다.<sup>10)</sup>

(나) 혼가(婚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관(宦官)이라는 것은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닌데, 그들에게 혼가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단지 부귀(富貴)한 것만 바라보고 사리(事理)에는 어두워서, 그들에게 딸 시집 보내는 것을 승락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음양(陰陽)이 어긋나고 화기(和氣)를 상하여서, 위로는 수한(水旱)의 재앙을 부르기도 하고 아래로는 혹 부인(婦人)의 도리를 더럽히는 수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한 여자(女子)가 원통한 생각을 품어도 연(燕) 땅에서리를 뿌린 일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대궐 마당에는 많은 환관이 있지 않습니까!<sup>11)</sup>

인용문 (가)에서 최만리는 예로부터 환관이 정사를 어지럽힌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의 우려는 환관이 궁궐 ‘안’에 근무할 뿐만 아니라 임금에 어릴 때부터 곁에서 모시는 존재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최만리의 주장은 단순히 환관을 멀리 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환관의 관복을 일반 사대부들의 것과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가 보기에 환관은 일반적인 사대부들[縉紳]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분되어야만 하는 존재였다. 이와 같은 최만리의 주장에는 환관을 폄하하는 시각과 그에 따라 환관의 복장을 일반적인 관복과 다르게 함으로써 그들과 나머지 관리들을 구별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 그러나

10) 『국역 연려실기술』. 별집 제10권 <환관(宦官)>, 민족문화추진회, 1976, 304쪽.

11) 『중종실록』 13년 무인(1518) 6월 19일.



이러한 그의 주장에는 역설적으로 환관과 나머지 관리들이 사실상 구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염려가 포함되어 있다.

인용문 (나)는 종종 13년 선비 권탁(權鐸)이 올린 상소의 일부분이다. 그는 이 상소를 통해 환관의 혼인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환관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非男非女)’라며 환관에게 혼인을 허락함으로써 음양이 어긋나고 화기가 손상되어 홍수와 가뭄의 재앙이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권탁의 상소는 조정에서 환관의 혼인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무마된다. 그 이유는 임금의 오래된 관례라는 이유로 논의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임금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수족이자 관료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환관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사대부들의 환관 비판은 대체로 환관들의 정치 참여와 혼인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환관은 궁궐 안에 거할 수 있는 관리였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거세당한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관은 금남의 구역인 궁궐 ‘안’에 있으면서 왕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하였다. 사대부 남성들은 바로 이러한 ‘불완전한 남성’ 혹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가 권력을 갖는 일과 혼인을 하는 일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 시대에 미혼 남녀의 문제는 왕이 개입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다. <맹자(孟子)>에 등장하는 ‘원녀(怨女)’와 ‘광부(曠夫)’의 사례<sup>12)</sup>에서 보듯, 혼기가 지난 남녀를 혼인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는 것은 조선 시대 내내 당위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환관의 경우는 정식 품계를

12) 맹자는 ‘남편을 찾지 못한 처녀가 없고 아내를 찾지 못한 총각이 없는(內無怨女 外無曠夫)’ 상황을 천하에 왕도가 펼쳐지는 증거 중 하나로 보았다.

받은 관리의 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혼인을 금지해야만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다) 옛날에 왕응(王凝)이 궤주(虢州) 참군(參軍)으로 관(官)에서 죽었는데, 왕응의 집이 본래 가난했습니다. 그 아내 이(李)씨가 개봉(開封) 땅을 지나다가 여사(旅舍)에 들르니, 주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사옵니다. 이씨가 날이 이미 저물어 선뜻 떠나지 못하자 주인은 그 팔뚝을 끌어잡아 밖으로 내쫓으니 이씨는 통곡하며 하는 말이, ‘내가 부인이 되어 능히 수절하지 못하고 이 손을 남에게 잡혔단 말이냐.’ 하고 곧 도끼를 들어 그 팔을 끊었습니다. 만약에 이씨와 같은 절개를 지닌 자라면 누가 능히 담장을 넘어서 위협을 하오리까. 혹 담장을 넘은 자에게 위협을 당하여 실절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의 음부(淫婦)이오니 통렬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하옵니다.<sup>13)</sup>

(라) 환자(宦者)는 그것이 더럽고 흉측하여 실로 인류(人類)가 아닌데도 장가 들고 가정을 가져서 보통 사람과 같이 사는데, 아내되는 사람이 혹 다른 남자와 접촉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유부녀의 실행으로 죄를 주니, 이것이 어찌 천리와 인정에 당한 것인가. 정에 어긋나고 이치에 어긋남이 이보다 더 한 것이 없으니 이것은 아마도 성인의 법이 아닐 것이다.<sup>14)</sup>

위의 인용문은 환관과 그의 혼인이 조선 시대의 가부장제 담론에 일으킨 문제를 보여준다. 인용문 (다)는 과부의 재가 허용을 두고 연산군과 신하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지는 주장을 폈던 사람들은 담장을 넘어 과부를 강제로 범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자 이 글의 발언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피해자인 과

13) 『연산군일기』 28, 연산 3년 12월 12일 기묘.

14) 『국역 연려실기술』, 앞의 글, 311쪽.

부를 음부(淫婦)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에서는 (다)와 사뭇 다른 목소리가 발견된다. 환관의 처는 분명 혼인을 했고, 남편이 있는 여성이다. 그럼에도 그녀가 다른 남성을 만났을 때 실절했다고 처벌하는 일이 천리와 인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다)에서 열행(烈行)의 모범으로 칭송되는 왕옹의 처 이씨는 과부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관주인과의 실랑이 중에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팔뚝을 잘라버린다. 이씨의 이러한 극단적 행위에 대한 칭송은 실절의 범위를 성관계 여부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라)에서 환처에 대한 평가는 이와 사뭇 다르다. 이 글의 화자는 환처가 설령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일로 그녀가 실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환관이 특정한 형태의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다)와 (라)는 ‘과부’와 ‘환처’ 사이에 존재하는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준다. ‘과부(寡婦)’에서 ‘寡’란 ‘없다’는 의미이다. 즉 과부란 남편이 없는 부인이다. 그럼에도 과부의 개가를 금지하는 것은 남편이 죽었더라도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의 자리가 남아 있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환처(宦妻)’는 ‘환관의 아내’이다. 즉 환처는 남편의 자리에 환관이 ‘있다’. 그러나 남편인 환관과 특정한 형태의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환처는 사대부들에게 ‘실절할 수 없는’ 여성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면 환처는 문제적 위치가 된다. 합법적으로 혼인한 유부녀임에도 실절할 수 없다면, 그 혼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환관의 혼인이 합법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가족 구성이 가부장제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은, 공식적인 문헌 이외에 문학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환관의 형상에 주목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따라서 3장

에서는 환관과 그의 아내를 둘러싼 사대부들의 시선을 몇 편의 야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매우 강고하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조선 시대의 젠더 이분법 체계 내에 존재하는 균열과 모순을 발견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3. 야담에 나타난 환관과 환처의 형상

『기문습유(記聞拾遺)』에 실려 있는 <의환(義宦)><sup>15)</sup>은 환관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성이 음양의 이치를 모르게 될 것이 안타까워 한 선비에게 이 여성을 첩으로 주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젊고 부유한 환관은 자신의 여성에게 배필을 찾아주려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종에게 과거 보러 상경하는 사람 중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데려올 것을 명령한다. 이러한 명령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남성, 즉 과거에 응시하는 남성이라면 누구든 괜찮다는 생각이 드러난다. 인품이나 외모, 집안 등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환관은 중들이 강제로 데려온 선비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에게 ‘좋은 일(好事)’이라는 것과 그가 방에서 만난 미모의 여인이 ‘만나볼 만한 사람(可見之人)’이라는 것이 전부다. 환관은 선비와 여인만을 남기고 방문을 잠근다. 그 이전에 선비와 여인 사이에 감정적 교류는 전혀 없었다. 이를 통해 그가 ‘환관 아닌 남성’과 여성이 한 공간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정욕이 생겨 성관계를

15) 이 작품은 『이조한문단편선(상)』(일조각, 1973)에 번역 소개됨으로써 알려졌다. 원 작품에는 제목이 없지만 번역자가 작품에 등장하는 구절을 택해 제목으로 삼았다. 앞으로 인용하는 원문과 번역은 최근 개정된 『이조한문단편집 1』(이우성·임형택 편역, 창비, 2018)에 실린 것을 취하되, 몇몇 부분은 문맥을 고려하여 필자가 약간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맺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마) “저 여자는 본래 양가의 딸로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 내가 품고 있었지요. 자색이 저만하고 채주도 있는데 속절없이 규중에서 늪어감을 항상 애련히 여기었소. 저번 어느날 꿈에 황소 한 마리가 여자의 배에 걸터앉았다가 용으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오르더라지요. 내 몸이 병신이 아니면 죽히 아들을 낳고 등과할 수 있을 텐데, 이승에서는 희망이 없어 그 길조에 응할 길이 없구려. 그래서 존객을 맞아 이런 좋은 일을 꾸뻐던 거 라오. 저 사람이 이왕 당신을 모셨으니 데려가시는 것이 옳겠소.”<sup>17)</sup>

인용문 (마)는 선비가 과거에 급제한 후 만난 환관이 그간의 사정을 모두 설명해주는 장면이다. 이를 통해 선비와 독자들은 선비에게 있었던 일들, 특히 그가 동침한 여인의 기이했던 요구를 소급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첫날밤 “제가 하는 말대로 하셔야만 원하시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若依吾言 始可從命)”라는 여인의 말은 그에게 일종의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배를 타고 넘어가면서 소울음 소리를 내리는 그녀의 제안은 꿈의 실현을 위한 것인 동시에 남녀의 성교를 재현하는 것이다. 그녀의 꿈은 조선 시대 모든 사족 남성들의 소망인 생자등과(生子登科)를 이루어줄 길몽이다. 그녀의 요구조건은 자신이 꾸 꿈의 상징적 재현이자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선비는 그녀의 말을 따르고 결국 여

16) 『계서야담』에는 주막 여주인의 노골적인 유혹을 끝내 물리쳐 목숨을 구하는 홍우원(洪宇遠)의 일화가 실려 있다. 이 이야기에서 홍우원이 유혹을 계속해서 거절하자, 주막 여주인은 그가 환관이 아닐까 의심하면서, 그를 ‘천하의 괴물’이라고 평한다. 이러한 의심과 평가는 환관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환관 아닌 남성’의 성적 능력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다.

17) 이우성·임형택 편역, 앞의 책, 284쪽.

인과 관계를 맺게 된다.

선비는 처음 본 여인에게 이상한 요구를 받으면서 곤경에 처한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요구를 수락한 대가로 상당한 행운을 얻게 된다. 그는 여인과의 '거래'에서 큰 이익을 얻은 셈이다. 특히 그가 뚜렷한 이유 없이 무작위로 선택된 남성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는 사실상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운을 얻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그 행운은 그에게 과거 급제와 득첩, 그리고 재산까지 안겨준다. 그러나 이때 여성은 철저히 타자가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녀는 환관이 품고 있던 여성인데, 그의 결정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된 남성에게 '주어진 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어떠한 감정이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서술자는 환관의 요구로 처음 본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그를 따라 떠나는 일련의 과정을 서술하면서도, 정작 그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있다.

환관은 자신이 가진 지위를 통해 시골에서 상경한 선비를 과거에서 급제시킨다. 결국 선비는 환관과의 만남을 통해 과거에 급제하고 첩까지 얻어 금의환향하게 된다. 이 모두는 환관이 언급했던 '좋은 일'이다. 따라서 김창의가 '의로운 환관(義宦)'이라는 서술자의 평가는 결국 꼭 그렇게 할 의무는 없었지만 자신의 처를 선비에게 주고 그 선비를 과거에 급제시킨 일련의 행위를 가리킨다.<sup>18)</sup> 게다가 환관은 선비와 인연을 끊는다. 서술자는 환관의 이름은 굳이 밝히지만 선비의 이름은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밝히지 않는다. 환관의 절연 역시 의로움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환관의 행위는 선비에게 이로운 것이지만, 그것이 밝혀지면 그에게 누가 되는

18) 이와 관련하여 조선 시대에 몇몇 기녀들이 '의기(義妓)'로 평가받았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의기는 대체로 사대부 남성들을 위해 절개를 지키거나 희생을 자처했던 기녀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녀들 역시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음에도 사대부 남성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것이다.<sup>19)</sup> 환관의 희생은 ‘의로운’ 것이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행해졌는가는 밝혀져서는 안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보면 그 ‘의로움’이란 사실 선비를 포함한 ‘환관 아닌 남성’의 ‘이로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계서야담』에 실린 환처와 이생의 이야기<sup>20)</sup>에는 환처를 구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시선이 나타난다. 이 이야기에서 이생은 음양의 이치를 모르니 도와달라는 환처의 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인 환관에게 이 일을 문제 삼아 환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 친구인 흥원섭은 도움을 거절하면 그뿐인데 왜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았느냐며 그를 질책한다. 이 이야기는 선행연구에서 ‘담을 넘어가 선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여성 이야기’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sup>21)</sup> 그러나 이생의 이야기는 이 유형의 나머지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는다. 이 유형의 이야기들에서 여성은 주로 이웃집에 사는 유생의 풍모를 보고 흠모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다가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에게 고백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이 유형에서 여성은 고백하는 남성을 이미 알고 있고 용모나 목소리 등을 통해 그에게 정욕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생과 환처의 경우, 환처가 이생에게 왜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19) 일단 환관이 되면 이전의 친족들과 왕래를 일절 끊는 것이 법도였다. 다음은 그러한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사족 남성들의 평가는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남 사족(士族)에 선천적인 고자가 있었다. 내시법(內侍法)에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養子)로 삼으면, 그의 족속과는 절대로 통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인조조에 환시(宦侍)의 숙부가 승지가 되어 대궐 안에 입직하고 있었는데, 환시가 바야흐로 내시부(內侍府)에 적을 두고, 금중(禁中)에 있다가 그가 얻은 감굴 몇 개를 저녁에 몰래 승지에게 바쳤더니, 승지가 말하기를, “남북사(南北司)가 서로 통할 수 없는 것은 국법이다.” 하고, 감굴도 받지 않았고 또 그로 하여금 자기 집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여 끝내 서로 대면하지 않고 죽었으니, 승지의 법을 지킴이 이와 같았다.”(『국역 연려실기술』, 앞의 글, 308쪽.)

20) 이희준, 유희수·이은숙 역주,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39~40쪽.

21) 이강욱, 앞의 논문, 175~212쪽.

되었는데 대한 서술은 없다. 그녀는 30세가 넘어서도 음양의 이치를 몰라 한이라는 점을 글에 적어 답 너머로 전했을 뿐이다. 그녀는 음양의 이치를 알게 해 줄 남성이라면, 곧 ‘환관 아닌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무방했던 것이다. 만약 이생이 외출하고 홍생이 남아있었다더라도 그녀는 그 편지를 전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환처 역시 무작위로 선정된 남성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홍원섭의 질책은 이생이 환처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다. 그는 남편인 환관에게 환처의 행위를 알렸다는 사실 때문에 이생을 질책한다. 이는 그가 환처의 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음양의 이치를 모르는 환처에 대해 ‘환관 아닌 남성’으로서 동정심을 느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생의 죽음은 그 간절한 청을 공개적으로 거절함으로써 생겨난 재앙으로 묘사된다.

‘환관 아닌 남성’이면 된다는 말은 남성 일반이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동야회집』과 『계서야담』에 실린 조현명의 이야기<sup>22)</sup>가 주목된다. 조현명은 젊은 시절 ‘환관의 아내와 사통하면 과거에 급제한다(世傳若通內侍之妻則登科云)’는 통설을 시험해보고자 실제로 환관의 아내와 통정한다. 발각될 위기를 여인의 기지로 모면한 후, 그는 다음 과거에서 급제한다. 조현명의 급제가 환관의 아내와 사통한 결과인가는 별반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당시 사대부 남성들 사이에서 그러한 소문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 소문은 환관의 아내를 ‘성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그녀와 통정하는 일이 과거 급제라는 행운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한다. 이는 사대부들이 환관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일을 일종의 음덕 쌓기처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야담에서는 여성의 정욕이 부정되고 이를 혼욕하거나 처벌하는

22) 이희준 편, 유화수·이은숙 역주, 앞의 책, 182~185쪽.



남성이 형상화된다.<sup>23)</sup> 그런 점에서 환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자기 충족적인 판타지로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4)</sup>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환관의 처는 과도하게 성적인 존재가 된다. 환처는 성관계만 가능하다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필요 없는, 성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이 자신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으리라 믿는 것처럼 그려진다. 이렇게 되면, 그녀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인 남성과 그렇지 못한 환관으로 나누게 된다. 환처의 이러한 형상화는 환관과 환처가 조선 시대의 젠더 이분법 체계 속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안정적인 위치가 없는 존재들은 인종·나이·계급·학력 등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대신 오직 게이나 트랜스젠더 등 성적인 요소로만 규정된다. 즉 이들은 성적인 것만 부각되어 규정된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성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sup>25)</sup>

23) 최기숙은 야담 속에서 여성의 고백에 대해 사대부 남성들이 이성으로서의 반응 대신 부모와 스승의 역할을 맡아 그들을 훈육하거나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논자에 따르면 이러한 모습은 여성의 고백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성욕으로 인한 타락과 부패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일이다. 최기숙, 『‘성적’ 인간의 발견과 ‘육망’의 수사학-18·19세기 야담집의 ‘기생 일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26, 국제어문학회, 2002, 1~39쪽.

24) 본고의 심사과정에서 심사자 중 한 분은 <의환>과 같은 야담이 환처의 정욕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연민을 담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환처 관련 야담이 인간성의 긍정을 표현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필자로서는 이러한 지적을 수긍하기 어렵다. 본문에서 서술되겠지만, 환처는 특정한 형태의 성관계가 없기에 그 이외의 무엇을 가졌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불행한 여성으로 그려진다. 즉 환관만 아니라면, 어떤 남성이든 자신을 만족시켜 주리라고 기대하는 ‘과도하게 성적인 존재’로 형상화된다. 이는 환관과 환처가 환관 아닌 남성들의 섹슈얼리티를 위해 요청되었던 타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5) 전혜은, 『섹스화된 몸』, 새물결, 2010, 268쪽.

임매의 『잡기고담』에 실린 <환처(宦妻)><sup>26)</sup>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에 나서는 여성이 등장한다. 조선 시대의 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능동성과 적극성은 선행 연구에서 그녀를 ‘조선 시대의 노라’<sup>27)</sup>, ‘자기 몸의 주체로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여성상’<sup>28)</sup>, 그리고 ‘여성 정욕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표현’<sup>29)</sup>이라고 평가했던 이유였다.

<환처>의 서사 구조에서 중요한 특징은 ‘회상’이 등장하는 액자구조라는 점이다. 특히 여성화자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욕과 남편 아닌 남성을 선택했던 사실을 회상한다. 그러나 서사적 상황을 검토해보면, 환처가 자신의 과거를 주저하지 않고 회상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그 과거 속에서 선택된 남성이 현재의 남편이고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다는 점이다. 또 그 일련의 사건이 모두 ‘과거’이고 ‘현재’는 관직에 오른 남편 및 아들과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즉 그녀의 선택이 행복한 현재로 이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회상이 가능했던 셈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서술자가 왜 굳이 액자구조를 선택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사실 환처의 회상을 듣는 ‘서울 선비(京城士子)’와 서사의 끝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여러 손님과 나누면서 웃는 ‘나(余)’를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듣고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나’는 굳이 서울 선비가 이야기를 ‘듣는’ 설정을 넣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선비가 노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설정

26) <환처>는 진재교의 논문에 실린 원문 및 번역을 사용하였는데, 필자가 일부분을 수정하였다. 진재교, 앞의 논문, 257~267쪽.

27) 임형택, 『한문서사의 영토2』, 태학사, 2012, 63쪽.

28) 진재교, 앞의 논문, 244쪽.

29) 이강욱, 앞의 논문, 205쪽.

은 다른 목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노부부의 ‘행복한 현재’가 언급되고 그 이후 노파가 선비에게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그녀의 선택이 가진 파격적인 성격은 상당 부분 완화된다.

(바) “내가 비록 처녀의 몸이지만 이미 머리를 올리고 있으니 누가 나를 정실로 받아주겠나? 첩살이나 할 뿐일 텐데! 그렇게 되면 정실부인에게 실컷 미움이나 받을 것이 뻔하니 이는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일이라. 그러면 누구를 쫓아가나?” 그때 홀연히 깨달았대요 ‘그래 중을 선택해서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러자 한편에서는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내 스스로 선택해서 취하고 버리게 되면 앞으로 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따라가야 하는 폐단이 생기는 것이니, 나는 양가집 딸자식으로 이것만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 정해야만 하겠구나.’<sup>30)</sup>

(사) ‘이 중이 한번 절로 들어가 버리고 나면 다시는 찾을 수 없다. 지금 강제로라도 혼인하지 않는다면 일은 다 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자 곧장 나아가 그의 음부를 잡았지. 그러자 중은 크게 놀라며 손을 빼 달아나려고 했지. 하지만 나한테 단단히 잡혀 있으니 달아날 수 있나. 중은 그저 애걸복걸하며 ‘보살님 봐주시오’ 할 뿐이었지. 나는 그를 잡아당겨 자리에 앉히고서, “스님 한번 앉아 보시오 내가 할 말이 있소 스님노릇하면 좋은 게 뭐가 있겠소? 나와 부부가 되어 살림 차리고 삽시다. 내 집 속에는 수백 냥 돈이 있대요. 스님은 아내도 얻고 또 재물도 얻으니 정말 좋지 않소?”<sup>31)</sup>

인용문 (바)에서 환치는 ‘나는 아직 처녀의 몸(我身尙處子)’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분명 혼인한 여성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몸’은 처녀라고 주장한다. 이는 혼인관계를 ‘몸’의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특정한 형

30) 진재교, 앞의 논문, 262쪽.

31) 같은 글, 263쪽.

태의 성관계 유무로 치환하는 일이다. 이 부분에는 모순이 많다. 그녀는 환관의 ‘아내’지만 그와의 혼인 관계를 부정한다.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관과의 혼인 관계는 혼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사회적 제도와 관습을 부정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 할 때, 그녀는 다시 그 관습에 얽매인다. 그녀는 정실부인이 되고자 하고, 남성에 대한 자신의 선택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그녀는 남편을 버렸지만 여전히 ‘양가집 딸’로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더 이상의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을 드러낸다.<sup>32)</sup>

이때 환처는 ‘길에서 처음 만나는 중’을 남편감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에는 ‘길에서 처음 만나는 남성’과 ‘중’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결합되어 있다. 전자는 앞서 살핀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선정되는 ‘환관 아닌 남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후자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야담에서 중은 초월적 능력을 지닌 ‘신승(神僧)’이나 부녀자와 사통하는 ‘음승(淫僧)’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에 나타나는 중은 성적으로 매우 미숙하며 수동적인 태도로 형상화된다. 이에 따라 환처와 중의 결연은 성 역할이 전도된 형태로 나타난다.

환처는 물리적 힘을 기반으로 중을 겁간한다. 그녀는 중이라는 이유로 그를 선택했지만, 그가 왜 중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중으로서 계속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그녀는 그가 중이기 때문에 ‘좋은

32) 정식 혼인한 남편을 버리고 달아나면서 더 이상의 실패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무언가 이상하다. 이는 그녀가 ‘자녀안(姿女案)’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안은 양반 가문의 여자로서 품행이 나쁘거나 세 번 이상 시집가서 양반의 체면을 손상시킨 사람의 경력을 적어 두던 문서이다. 이 문서에 이름이 오르면 그 가문의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의 과거(科擧)나 임관(任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환처가 여전히 가부장제 ‘안’의 혼인제도, 특히 남성 중심적 질서에 예속된 존재임을 알게 해준다.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면서 자신이 그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한다. 환처의 이러한 모습은 야담에 등장하는 남성의 강간 형상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sup>33)</sup> 그녀의 일방적인 '부부 선언'은 이러한 확신에서 가능했다. 이와 같은 환처의 모습은 남녀의 성 역할을 바꾸어 놓았을 뿐 남성적 성담론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환처가 '여성의 가면을 쓴 남성'이라는 지적<sup>34)</sup>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게 된다.

(아) “옛날 탁문군이 과부의 몸으로 사마상여를 따라 도망갔던 일은 지금에 와서는 풍류 이야기가 되었다. 지금 이 첩은 그 행적은 비록 ‘사분(私奔)’이지만 원래 실절(失節)한 것이 아니고, 일이 지극히 방탕하기는 하지만 실상 따를 바를 선택하였으니 탁문군과 비교해 더 낫다.”고 하니 좌중이 배를 잡고 웃었다.<sup>35)</sup>

인용문 (아)는 서사 끝부분에서 환처의 이야기를 들은 남성들이 한 논평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 발언자는 환처의 행위를 두고 '사사로이 달아났지만 실절한 것이 아니고 방탕하지만 따를 바를 선택했다'고 평가한다. 언뜻 보기에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 평가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일종의 제치 있는 농담으로 받아들여진다. 발언자는 이러한 말을 통해서 환처가 남편을 버린 행위가 실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환관과 성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그 아내는 절개를 잃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손목만 잡혀도 그 손목을 잘랐던 여성을 명예롭다고 칭찬했던 시각과는

33) 최기숙은 야담집에서 남성의 강간을 묘사하면서 피해자 여성의 입장을 소거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하거나 폭력성을 희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최기숙, 『관계성』으로서의 색슈얼리티:성, 사랑, 권력-18·19세기 야담집 소재 '강간'과 '간통'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243~275쪽.

34) 박무영·김성은, 앞의 논문, 128~130쪽.

35) 진재교, 앞의 논문, 266~267쪽.

상반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평가가 ‘웃음거리’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용문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환관의 아내가 처했던 고난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들은 단지 ‘환관’의 아내가 겪었던 질곡과 그녀가 중을 겁간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사대부 남성들이 ‘웃음’을 통해 환처의 이야기를 향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사실 이중적이다. 먼저 이 이야기와 논평에서 ‘배를 잡고 웃을(捧腹)’ 정도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사분(私奔)’이나 겁간처럼 심각해 보이는 상황을 두고 웃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의 경험담이 ‘안전한 쾌락’이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정욕에 적극적인 여성이 등장하지만 그녀가 ‘가면을 쓴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성 역할 구도 자체는 위협되지 않는다. 오히려 안전하게 그 역전된 구도를 ‘웃음거리’로서 즐길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 속에는 ‘환관 아닌 남성’들이 갖는 우월감과 그것을 통해 이 이야기를 ‘재미있는 음담’으로서 소비하는 남성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환처 이야기에서 환관은 서사 전반에서 음영(陰影)처럼 존재한다. 즉 환관은 서사에서 그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환처가 중요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그녀는 지속적으로 ‘환관’의 아내로 그려지면서, 무작위로 선정된 남성을 욕망하거나 그에게 ‘행운’을 선사한다. 이처럼 무작위로 선정된 남성은 단순히 ‘환관 아닌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남성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고 그러한 가정은 서사에서 실제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환관 아닌 남성은 환관과의 지속적 대조를 통해 남성성을 확보한다. <의환>과 <환처>에 등장하는 여성은 매우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남성의 타자로서 남성성의 보존과 그것을 갖고 있다고 믿고 싶은 남성들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

다. 환관과 관련된 여성들은 이야기 속에서 일반적으로는 표현이 금지된 정욕을 마음껏 발산하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금지되었던 여성 정욕의 표현이라기보다 환처가 과도하게 성적인 존재로 표상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성적인 문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환관 아닌 남성과 특정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성관계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 과정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남성들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자 은덕을 베푸는 구원자로 그려진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에서 환관이 아닌 남성들은 환처의 정욕을 풀어주고 그녀에게 성적인 만족을 선사하며 심지어 이상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 4. 환관의 젠더 체계 교란과 그 의미

환관 이야기에서 환처가 과도하게 성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음을 살폈다. 그런데 환처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환관’의 아내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환관들은 단순히 어떤 신체기관 하나가 결여된 존재로 그려지지 않는다. 그들은 집단화되고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남성들이 가진 어떤 결여와 공포를 모두 짊어진 ‘결여의 존재’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관 아닌 남성’은 그 ‘결여’를 결여한 존재, 즉 타자로서의 여성에게 성적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러한 남성 섹슈얼리티의 재현 방식은 여성 섹슈얼리티의 재현 방식과 일정한 차이를 보여준다.

<사씨남정기>에 등장하는 사씨와 교씨의 형상화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재현에 관한 좋은 사례이다. 이 소설에서 여성 섹슈얼리티는 ‘많음·적음’

의 문제로 그려진다. 가령 사씨와 교씨는 결혼 전 모두 섹슈얼리티가 충분한 존재였고, 그것은 어느 정도 긍정된다. 혼인 전 미모를 묻는 질문이나, 어느 정도의 미모가 없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이와 관련된다. 그러나 혼인 이후, 특히 집을 나온 이후 사씨와 교씨의 섹슈얼리티는 상반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사씨가 충분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음에도 그녀의 섹슈얼리티는 점차 사라지고 서사의 끝부분에서는 거의 무성적인 존재처럼 그려진다. 반면 교씨의 섹슈얼리티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결국 그녀는 음녀로 규정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이와 비교해보면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있음:없음’의 문제처럼 보인다. 환처 이야기에서 환처에 걸맞는 짝으로 선택된 남성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 만난 남성’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즉 그들은 ‘환관이 아닌’ 남성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었고, 결연 과정에서 자신에게 섹슈얼리티가 있음을 증명한다. 중요한 것은 그 섹슈얼리티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있는가 없는가이다. 많고 적음과 있고 없음이라는 재현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많고 적음의 방식으로 재현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남성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섹슈얼리티는 자녀 생산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면서도 동시에 남편 이외의 남성에게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억압된다. 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남성적 관점에서 통제하고자 할 때 생겨나는 모순이다.<sup>36)</sup>

36) <사씨남정기>에서 사씨와 교씨의 대립은 ‘眞淫’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 구도에는 ‘아름답지만 (나 이외의 다른 남성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여성’과 ‘아름답기에 (나를 포함한 못 남성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는 여성’이라는 화해불가능한 모순이 자리잡고 있다. 또 이러한 모순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남성 욕망의 대상으로만 한정하는 과정과 남성 혈통 중심의 가부장제가 만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조현우, 「<사씨남정기>의 약녀 형상과



그런 점에서 환관은 사대부 남성들에게 자신들의 성적 능력이 충분함을 상상하게 해주는 ‘결여’를 표상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문제는 환관이 공식적인 관료체계에 포함된 존재이면서,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법에 순종하는 존재였다는 점이다. 즉 그는 ‘결여’를 표상하는 존재이면서도 합법적으로 혼인하고 후계자로서의 아들을 얻으며 족보를 갖는 남성이었다. 따라서 환관은 가부장제 ‘안’에서 어떤 위치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다.

(자) 임금의 덕이 손상됨은 대개 환관과 궁첩에서 연유한다. 덕이 손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환관은 독양(獨陽)이고 궁첩은 독음(獨陰)이니, 화육(化育)이 선통(宣通)될 이치가 있겠는가? 어느 나라이건 말기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자손이 적어져 나라가 망하는데, 이는 대개 독음 독양의 무리들이 점점 많아져서 화육이 선통되지 않기 때문이다.<sup>37)</sup>

그렇다면 만물을 음양의 관점에서 설명했던 조선 시대의 젠더 체계에서 환관은 무엇으로 규정되었을까? ‘음양의 이치를 모른다’는 환처의 고백은 환관이 음양에서 ‘양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인용문(자)에서 환관과 궁녀는 각각 ‘독양(獨陽)’과 ‘독음(獨陰)’으로 지칭된다. 독양과 독음이란 오직 양으로만 그리고 음으로만 존재해야 하는(혹은 존재하고 있는) 젠더를 의미한다. 즉 환관은 남성이며 양(陽)이지만, 음(陰)을 만나지 못하고(혹은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안 되는 존재이다. 그런데 음양론에서는 음과 양은 만나야만 하는 것들이며, 대대적(待對的) 관계이다. 따라서 양으로만 존재하는, 혹은 그 양을 음과의 결합을 통해 표출할 수 없는 존재란 음양이론에서 일정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런 점에서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319~348쪽.

37) 이익, 『성호사설』 권10 <환관궁첩(宦官宮妾)>, 민족문화추진회, 1978, 150~151쪽.

환관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환관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로 규정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대로 음양설을 기반으로 하는 젠더 이분법에 균열이 생겨난다. 젠더를 음양 혹은 남녀로만 규정하는 일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현실을 강제를 통해 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 속에서 남자가 아니라면 여자, 반대로 여자가 아니라면 남자여야만 한다. 이는 마치 화장실이 남자용과 여자용 둘로만 이루어진 것과도 비슷한데, 자신의 정체성이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면, 강요된 젠더 체계에 안정적으로 포함되기 어려워진다.<sup>38)</sup> 가령, 조선 전기 대규모 스캔들을 야기했던 ‘사방지(舍方知)’의 경우, 죄가 확인되었음에도 단순히 지방으로 추방되는 것에 그쳤다. 그 이유는 사방지가 간성인(間性人) 혹은 양성인(兩性人)이었기에 처벌할 명목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결국 사방지는 ‘병자(病者)’라는 이름으로 추방되었고, 이는 사방지의 젠더를 법 ‘안’에서 규율할 방법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sup>39)</sup>

그러나 환관의 경우는 사방지와 다르다. 환관은 무엇보다 예외적이거나 드문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궁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존재였고, 그 수도 적지 않았다. 또 그들은 법 ‘안’에서 역할과 권리를 부여받은 존재였다. 환관을 제 3의 젠더로 규정한다면, 그들을 공식적인 관료체계와 법 ‘안’에 두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또 조선 시대 젠더 이

38) 주디스 헬버스탐, 유강은 역, 『여성의 남성성』, 이매진, 2015, 49~61쪽.

39) 홍나래는 사방지가 양성인이자 인류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규정되는 과정을 통해 형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철저한 타자화를 통해 만들어진 이러한 배제의 논리는 가부장 사회의 남성성과 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홍나래, 『사방지 스캔들로 본 욕망과 성, 그에 대한 질서화 방식』, 『구비문학연구』 38, 한국구비문학회, 2014, 251~282쪽.

분법의 근거를 제공했던 음양 이론의 관점에서 환관은 무엇으로 규정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환관의 존재가 조선 시대 젠더 이분법의 골칫거리이자 그것에 균열을 야기했던 이유였고, 환처가 과도하게 성적인 존재로 그려졌던 이유이기도 했다.

(차) “궁중(宮中)의 옛 규례(規例)에, 내감(內監)과 궁녀(宮女)가 서로 부부가 된 것은 한(漢) 나라 시대부터 그러하였는데, 이를 대식(對食)이라 한다. 그런데 궁녀는 내감을 통하여 물품을 사들이고, 내감은 궁녀에게 의뢰하여 옷을 꿰매 입는 등, 민간의 부부와 다름이 없었다. … 궁인(宮人)이 저희들끼리 서로 대식(對食)하는 것도 옳지 못한 일인데, 더구나 환관과 궁인이 서로 짝이 된 자가 셀 수 없고, 게다가 서로 사통(私通)까지 하여 궁금(宮禁)을 더럽힌 것은 예전에 없었던 일이다. 객씨와 위충현의 죄는 천지(天地)간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무리 후대일지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분개심을 금치 못하게 한다.”<sup>40)</sup>

환관이 불러일으킨 균열은 단순히 그들을 무엇으로도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인용문 (차)에서는 환관과 궁녀 사이의 결합을 ‘대식(對食)’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위충현과 객씨의 일이 “천지간에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충현은 환관이고 객씨는 궁녀이다. 만약 이들을 남녀관계로 이해한다면, 궁중의 기강을 무너뜨린 ‘음사(淫事)’ 정도로 이해하면 그뿐이다. 따라서 극도에 달한 변이나 천지간에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까지 묘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충현과 객씨의 결합은 독양과 독음의 결합이면서도 이들이 “민간의 부부와 다름이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비

40)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20』, <한나라 궁중의 대식에 대한 변증설(漢宮對食辨證)>, 민족문화추진회, 1989, 127~128쪽.

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 젠더 이분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물학적 성이 무엇인가가 핵심이 아니라, 화육의 선통이라 불리는 가부장제적 성 생산 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이고 폭력적이며 내부적 모순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과정은 모든 구성원이 그 과정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능력을 갖춘 채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도 않고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다.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했던 것은 자손이 모계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 사실에 대한 남성의 근원적 의심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부장제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통제함으로써 남성 혈통을 보존하는 제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형태의 성관계와 이성애를 특권화할 때만 유지된다. 따라서 독양과 독음의 결합이, 혹은 부인과 입양된 아들로 구성된 환관 가족이 가부장제의 여타 가족과 ‘다름이 없다’면 가부장제 자체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sup>41)</sup>

따라서 환관은 조선 시대에 일정한 젠더 체계 교란을 야기했던 존재였다. 이는 무엇보다 그가 ‘남성’이자 ‘非남성’이었으며, ‘혼인할 수 없는(혼인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규정되었지만 혼인하여 합법적으로 가족을 구성했던 관리였기 때문이다. 환관이 야기한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성적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환관 아닌 남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

41) 여성영웅소설 <방한립전>은 이러한 환관 가족의 구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에서 방관주, 영혜빙, 낙성은 완벽한 가부장제적 가족처럼 그려지지만,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적 관계나 성적 관계가 없다. 따라서 방씨 가문은 혈연적으로 단절되었으며 가부장제의 핵심인 남성 혈통의 계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이 소설에서 젠더 규범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실패했다. <방한립전>의 이와 같은 가족 구성과 젠더 규범의 실패는 젠더 규범 내부의 모순을 드러낸다. 조현우, 『<방한립전>에 나타난 ‘갈등’과 ‘우울’의 정체-젠더 규범의 균열과 모순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97~132쪽.

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앞서 예로 들었던 ‘사방지’나 조선 후기의 여성영웅소설에서 주인공들은 ‘각별(各別)한 존재’로서 배제되거나 수용된다. 이러한 존재들은 예외적인 존재로서 보편적인 것과 관계맺는다. 예외는 제외됨을 통해 질서 안으로 포함되기 마련이다.<sup>42)</sup> 이는 체제 내부에 포함된 불법적인 요소를 축출하려 함으로써 사실은 ‘내부’를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는 밖으로 배제되고 추방되는 것인 동시에 그 배제를 통해 내부를 구성하게 된다.

환관이 초래하는 문제는 바로 그러한 배제와 수용을 통한 체제 ‘내부’의 구성을 방해하고 그것에 균열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균열이 야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관이 법으로 보호되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서 그 법을 준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배제를 통해 내부를 구성하는 전략에 차질이 생겨난다. 결여된 남성도 가족을 갖고 후계자를 합법적으로 얻으며 족보를 가질 수 있다면, 가부장제에서 주장하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억압을 통한 남성 혈통의 보존이라는 상상적 내부에 균열이 생겨나게 된다. 남성 혈통의 보존과 여성 섹슈얼리티의 억압이란 사실 취약한 논리적 기반 위에서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체로 억압과 배제로 이루어진 젠더 이분법의 강제를 통해 작동한다. 그러나 그 억압의 기반이 되는 법 ‘안’에서 균열이 일어날 때, 젠더 이분법 정당성에 대한 의심과 내과가 시작될 수 있다. 환관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균열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42) 김현강, 『슬라보예 지젝』, 이룸, 2008, 172~173쪽.

## 5. 결론

조선 시대의 젠더 연구는 어떻게 가능할까? 조선 시대의 젠더 체계와 그 속에서 구체적 수행으로 드러났던 개인의 사례를 어떻게 조화롭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젠더 연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문학을 포함한 좀 더 넓은 범위의 젠더 연구를 통해 조선 시대 젠더 구성의 총체적 면모를 밝힐 필요가 있다. 또 조선 시대의 젠더 연구를 위해 ‘사방지’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의 역사적 사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개인의 사례를 깊이 있게 파고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성적 소수자들이 야기했던 젠더의 균열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사방지가 ‘병자’로 취급되어 추방된 것처럼, 성적 소수자들은 조선 시대에 법 ‘바깥’으로 추방되어 사라진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야기할 수 있었던 젠더 규범의 갈등 혹은 균열은 묻혀버린다. 이들은 예외적인 존재로 취급되며, 그에 따라 법의 안정성과 권위는 지속된다.

이 글에서는 조선 시대 내내 사대부 남성들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환관에 주목했다. 환관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들이 법을 준수하고 그 법에 따라 관리이자 가부장으로 살았던 존재임에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젠더 규범을 흔들고 균열을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즉 환관은 젠더 규범 자체가 가진 모순을 체화하고 폭로하는 존재였던 셈이다. 이들은 가부장제적인 젠더 규범으로 쉽게 설명되기 어려웠지만, 예외적인 존재로 배제되지 않고 합법적 관리이자 남성으로서 법 내부에 존재했다. 바로 이러한 환관의 모순적 형상이야말로 이들이 야기한 젠더 체계 교란의 핵심적 원인이었다.

한국 사회는 성적 다양성의 인정 문제가 아직 표면화되고 있지 않다. 가령,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며 커밍아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성적

다양성을 강조하고 교육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오해와 편견이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조선 시대 환관에 대한 사대부 남성들의 인식과 비판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일정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사대부 남성들이 왜 환관의 지위와 혼인, 가족구성을 불편해하고 그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했는가를 이해할 때, 성적 다양성의 인정을 위해 어떤 방향이 필요한가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제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균질적이며 매끈한 표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환관과 그의 가족, 족보, 그리고 환관의 가족과 특히 환처를 바라보는 양반 사대부 남성의 시선을 통해 그 제도가 사실상 젠더 이분법과 이성애 강제를 통해 유지되었던 것이며, 그 속에는 상당히 많은 균열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젠더 이분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는 지금, 젠더 이분법과 이성애 너머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존중되고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꿈꿀 때, 환관과 환처에 대한 연구는 가부장제가 가진 모순점을 드러내고 내파하는 균열들 중 하나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20』, <한나라 궁중의 대식에 대한 변증설(漢宮對食辨證說)>, 민족문화추진회, 1989, 127~131쪽.
-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1』, <의환(義宦)>, 창비, 2018, 277~286쪽.
- 이익, 『성호사설』 권10 <환관궁첩(宦官宮妾)>, 민족문화추진회, 1978, 150~151쪽.
- 이희준, 유화수·이은숙 역주,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1~772쪽.
- 『국역 연려실기술』, 별집 제10권 <환관(宦官)>, 민족문화추진회, 1976, 304~311쪽.
- 샤를 달레, 정기수 옮김, 『벽안에 비친 조선국의 모든 것 - 조선교회사 서론』, 탐구당, 2015, 64~65쪽.
- 김광일, 『환관과 지식인 - 眞德秀 『大學衍義』 『嚴內治』의 구조와 의미』, 『중어중문학』 60, 2015, 43~73쪽.
- 김현강, 『슬라보예 지체』, 이룸, 2008, 172~173쪽.
- 박무영·김성은, 『<환처(宦妻)> 다시 읽기 - 여성 담론을 읽는 한 방법적 시론』,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학회, 2010, 111~141쪽.
- 박상진, 『내시와 궁녀, 비밀을 묻다』, 가람기획, 2007, 1~288쪽.
- 박영규, 『환관과 궁녀』, 웅진지식하우스, 2009, 1~447쪽.
- 박인수, 『환관』, 석필, 2003, 1~335쪽.
- 박종성, 『아전과 내사-조선조 정치적 복종의 두 가지 형식』, 인간사랑, 2016, 1~285쪽.
- 손민환, 『15세기 말 중국(明)을 견문한 조선 지식인의 환관 인식』, 『한국학연구』 2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307~331쪽.
- 신명호, 『조선 시대 환관가족의 구성과 기능』, 『고문서연구』 26, 한국고문서학회, 2005, 123~142쪽.
- 이강욱, 『야담에 나타나는 여성 정욕의 실현과 서술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175~217쪽.
- 장희홍, 『조선전기 환관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80쪽.
- 장희홍, 『연산군대 환관정책과 내시부의 위상강화』, 『경주사학』 21, 경주사학회, 2002, 169~204쪽.
- 장희홍, 『조선초기 환관제정비와 운영』, 『경주사학』 22, 경주사학회, 2003, 137~165쪽.



- 장희홍, 『내시, 권력을 희롱하다』, 경인문화사, 2006, 1~203쪽. .
- 장희홍, 『조선 시대 정치권력과 환관』, 경인문화사, 2006, 1~347쪽.
- 전혜은, 『섹스화된 몸』, 새물결, 2010, 1~388쪽.
- 조현우, 『〈사씨남정기〉의 악녀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319~348쪽.
- 조현우, 『〈방한림전〉에 나타난 ‘갈등’과 ‘우울’의 정체-젠더 규범의 균열과 모순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97~132쪽.
- 진재교, 『『잡고담』 소재 <환처>의 서사와 여성상』, 『고소설연구』 13, 한국고소설학회, 2002, 225~267쪽.
- 최기숙, 『“성적” 인간의 발견과 ‘육망’의 수사학-18·19세기 야담집의 ‘기생 일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26, 국제어문학회, 2002, 1~39쪽.
- 최기숙, 『“관계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성, 사랑, 권력-18·19세기 야담집 소재 ‘강간’과 ‘간통’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243~275쪽.
- 홍나래, 『사방지 스캔들로 본 육망과 성, 그에 대한 질서화 방식』, 『구비문학연구』 38, 한국구비문학학회, 2014, 251~282쪽.
- 미타무라 다이스케, 한중수 역, 『환관 이야기』, 아이필드, 2015, 1~296쪽.
- 주디스 헬버스탐, 유강은 역, 『여성의 남성성』, 이매진, 2015, 49~61쪽.

ABSTRACT

A Study on the Crack of Binary Gender System in Chosun Dynasty  
: Focussing on the Stories of Eunuchs and Their Wives

Cho, Hyun-w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eunuchs of Chosun Dynasty had brought about gender trouble and crack in the binary gender system which seems to be very strong and logical. The eunuchs, who have been castrated and are incapable of reproduction, were the public officials to assist kings and the patriarch with legal wife and son. In that respect it can be said the eunuchs were publicly certified as men. But eunuchs were not men also. Because of castration, they could work in palace where was the place forbidden to men except king and his family. There are no paternal blood relationship between eunuchs and their descendants, even though the family of eunuchs looks like an ideal patriarchy. Because of this duplicity eunuchs have been regarded as neither men nor women in Chosun Dynasty so that they could not belong to the binary gender system in which human beings are divide into two clear-cut groups of women and men. In Yadam(野談), there are stories in which eunuch gave his wife to a man selected randomly. The man has made a big fortune including the beauty, the government service and wealth on a single occasion, just because he has not been castrated. In another stories, there are men who were convinced that they could have good luck from a sexual relationship between eunuchs' wives. They are regarded themselves as the savior. In these stories, eunuchs' wives are represented as the overly sexual women who only long for the sexual intercourse with penetration. But this representation of eunuchs and their wives paradoxically illuminates various contradictions and dilemmas of the binary gender system. Eunuchs and their wives belong to the legal patriarchy and obey the rule of patriarchy, so they made gender trouble

with patriarchy. This paper finally offers that the full-fledged research on eunuchs and their wives are urgently demanded to overcome gender essentialism on the binary gender system.

**Key Words** Eunuchs, Eunuchs' wives, the Binary Gender System, the Righteous Eunuch(義宦), Yadam, Crack

논문투고일 : 2018.04.22

심사완료일 : 2018.05.09

게재확정일 : 2018.05.15